

6» 총학·대학본부 '프라이م 사업' 두고 갈등



7» 시민교육, 시민의식 그리고 난민



2학기 성적 열람 및 공시(정정)기간 공고

성 적 입 력 기 간 : 12. 15(화) ~ 12. 27(일)
성 적 열 람 기 간 : 1차 12. 15(화)~12. 23(수)
(강의평가 실시자) 2차 12. 29(화) ~ 12. 30(수)
성적공시(정정)기간 : 2015. 12. 31(목) ~ 21016. 1. 5(화)



대학주보로 본 2015, 올 한해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관련기사 4~5면

제3의 중핵교과 '과학' 분야 추가된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과정 개편 포함한 4가지 발전방안 계획 추진

2016 교양교육 개편

김도엽 기자 wogmd567@khu.ac.kr

지난 2011년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가 신설된 후 처음으로 교육과정 개편을 포함한 4가지 발전방안 계획이 추진된다. 4가지 발전방안에는 교내·외 석학과 우수 교원 영입, 교양교육 및 실천 역량 강화 등 다양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개편 배경에는 기존 후마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타 학교와 차별화된 교양 교육의 모범을 재확립하고 새로운 차원의 창의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과도 관련이 있다. 우선 교육과정이 개편된다. 개편



지난 1일 후마 유정환 학장이 우리신문을 만나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배경에는 이공계 학생들이 전공과목과 더불어 들어야 할 교양강좌가 35학점으로 너무 많다는 지적과 영어 과목에 치중돼 다양한 국제화 교육을 추구하는 후마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관련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8

월 양 캠퍼스 후마 학장을 포함한 '후마 운영개선 TF'는 후마 재도약과 상징성 제고를 위해 5차례 회의를 가졌고, 현재 교과 과정 개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개편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도 끝난 상황이다. 교육과정 개편에서 가장 크게 바

뀌는 부분은 중핵교과다. 기존 '인간의 가치 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 2과목으로 구성된 중핵교과를, 과학을 주제로 제 3의 중핵교과를 신설돼 3과목으로 바뀐다. 기초교과인 영어와 글쓰기도 개편된다. 영어1, 2로 구분되던 기존 수업을 영어로 통합하고 영어2는 자유이수에 포함돼 심화과정 과목으로 바뀐다. 글쓰기1, 2 과목은 모두 25명 정원을 유지하는 것에서 글쓰기1 20명, 글쓰기2 30명으로 바뀐다. 또한 배분이수교과 7개 영역에서 5과목을 선택해 15학점을 듣는 것에서 4과목 선택 12학점 이수로 바뀐다. 총 이수학점은 35학점에서 33학점으로 개편된다.

▶3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후마니타스 교육자 협의회 출범,
대표 김민철(후마니타스칼리지) 인터뷰



“강사 고용안정과 ‘후마 발전’ 위해 책임 다할 것”

김종완 기자 as03400@khu.ac.kr

지난 11월 20일 협의회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의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이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협의회 대표 김민철 교수(후마)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지난해부터 양캠퍼 후마 내 교강사의 목소리를 대변할 협의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마땅한 계기가 없어 시간만 흘러가던 차에, 이번에 국제캠퍼스 객원교수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를 계기로 출범을 선언한 것이다.”

“많은 시간강사가 쉽게 쫓겨나고 있지만, 생활이 안정돼야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

김 교수는 담담하게 시간강사의 현실을 전했다. “시간강사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시간강사들이 너무 쉽게 쫓겨나고 있다. 받는 임금도 굉장히 적다.” 실제로 우리 신문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시간강사는 재임용의 압박에 시달리고 한달 평균수입은 90~100만원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 대해 김 교수는 교수들이 모여서 학교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협의회의 목적은 강사의 고용안정뿐만이 아니다. ‘후마의 발전’도 협의회의 설립 목적 중 하나다. 협의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모여 우

리학교의 교양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복잡한 상황이지만, 이번 후마 교육 과정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이다.”

협의회는 전임교수 2명, 객원교수 4명, 시간강사 6명 등 12명의 ‘운영위원회’로 운영되며, 소속 회원수는 총 70명 정도라고 한다. 조직화를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아직 충분한 회원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은 1번만 할 수 있도록 해서 번갈아 가며 운영진을 맡을 계획이다.” 김 교수는 ‘설립 5년째인 후마가 초심을 되살릴 때’라는 것을 강조했다.

“대학이 취업사관학교가 되어가는 현실에서, 우리학교의 후마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 반기를 든 커다란 실험이었다. 대학은 학문을 우선해야 하며, 학생들에게는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교양 교육이 필요하다는 선언이다. 타 대학에서의 관심과 학생의 만족을 모두 충족시킨 성공적인 실험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개편을 앞둔 지금, 초심을 지키기 위해 교수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와 의견 충돌이 있을지 모르지만 논의와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김 교수. 교양강의의 증가와, 강의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회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도 충분히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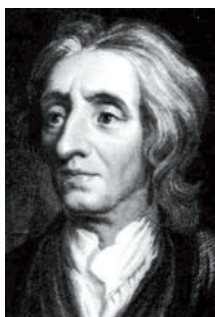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인간의 가치탐색 제4장의 제목이다.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공평히 나누어지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라는 뜻이다. 교수들이 실천하지 않아서야 되겠다. 시간강사의 고통을 나누려 노력할 것이다”

관용, 상호 호혜적 이타심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⑧

김영진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 볼테르가 말했다고 전해지는 이 말은 근거가 분명하지 않지만 ‘관용’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인용되는 말이다. 한마디로 관용은 주체가 타자에게 베푸는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자를 어느 수준만



로크는 합리적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한 관용을 제기했다

큼 인내하고 견디며 용인해야 하는가.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바로 여기서 관용의 모순이 발생한다. 약자를 노

예로 예측시키도록 용인하는 무제한적 관용은 구축을 초래한다는 논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관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그 한계의 설정은 어디까지인가?

중세 초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사회적 덕목으로서의 ‘용인’을 말했고, 12~13세기에 이르러 관용은 왕이나 통치자가 집단과 개인에게 너그러운 처분을 베푸는 ‘은총, 시혜’라는 특권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초기의 ‘관용’ 개념은 공존 내지 국가통합이라는 정치적인 이유가 다분히 있었다.

‘관용’이라는 용어 자체는 자유나 평등 개념처럼 근대에 발명된 것이다. 17세기 구교와 신교의 치열한 종교 전쟁 후 낭트 칙령을 통한 종교적 관용이 그 예다.

그리고 영국의 왕위 계승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일 때, 로크는 『관용에 관한 편지』를 익명으로 출판하였다. 그는 정교бор리의 원칙뿐 아니라 합리적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한 관용을 제기했다. 그의 사상은 또한 밀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이번 호가 2015학년도 2학기 종간호입니다

대학주보는 방학중에도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edia.khu.ac.kr/khunews



‘총장과학의 대화’가 지난 3일 서울 캠퍼스 본관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평교수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이야기는 대학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